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

2023

국제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2022 년 5 월

손과 데이비드 골드만

2014 년 국제 아동 탈취 방지 및 귀환 법률

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음

22 U.S.C. §9111, ET SEQ



미합중국
국무부
워싱턴 DC 20520

국무부 장관으로 부터의 메세지

이 글을 읽는 분에게,

미국무부는 미국 시민, 특히 우리의 가장 연약한 시민 – 어린이 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는데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 부모 아동 탈취 사건을 해결하거나 방지하고 국제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협약) 아래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미합중국의 노력을 리드하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무부 산하, 영사 관련청의 아동 문제 사무소가 협약을 위한 미국의 중앙당국 역할합니다. 이 사무소의 사명감을 가진 직원들은 국무부, 우리의 부서간 파트너, 해외 직원들, 그리고 국제 부모 아동 탈취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가까운 관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약이, 적절히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제 부모 아동 탈취를 해결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를 제공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 정부들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동의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협약 의무를 준수하도록 장려합니다. 불행히도, 협약을 비준하거나 동의하는것을 주저하는 국가들이 있고, 어떤 국가들은 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증명하듯,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각 국가들의 수행 평가는 2014 년의 손과 데이비드 골드만 국제 아동 탈취 방지 및 귀환 법률(법률)에 정의된 기준을 사용합니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14 개 국가 (2 개 국가, 불가리아와 러시아 추가)가 2022 년에 불이행 패턴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등재되었던 세계의 국가들은 그들의 수행을 개선시켜 올해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우리의 평가는 이번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수행이 면밀히 관찰되어야되는 국가들에 대한 우려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들이 국제 부모 아동 탈취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도록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의회, 부모, 변호사, 판사 그리고 법집행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친애하는,

앤토니 J. 블린큰

국무장관

불이행 패턴을 보이는 국가들

대한민국

국가 요약: 협약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2013 이래로 체결되어있습니다. 2022 년에, 대한민국은 불이행 패턴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법 집행관들이 반복적으로 탈취건에 대해 집행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결과로, 협약 아래 탈취된 아동 반환 요청의 50 퍼센트가 12 개월 이상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들 사건들은 2 년 10 개월간 미해결 상태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 년 연례보고서에서 불이행 패턴을 보이는 국가로 등재되었습니다.

최초 문의: 2022 년에, 국무부는 대한민국으로의 탈취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부모들로 부터 2 개의 최초 문의를 받았으나, 국무부로 완성된 청구가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아동	사건	아동
	2021	2021	2022	2022
연초에 진행 중이었던 탈취 사건	5	7	3	5
새로운 탈취 사건	1	1	1	1
총 탈취 사건	6	8	4	6
한 해 동안 해결된 탈취 사건	3	3	2(50%)	3
한 해 동안 종결된 탈취 사건	0	0	0(0%)	0
연말에 여전히 진행중인 탈취 사건	3	5	2(50%)	3

중앙당국: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중앙당국은 협약 아래 탈취사건들의 해결을 촉진하는 건설적 관례를 갖고 있습니다.

	사건	아동	사건	아동
	2021	2021	2022	2022
연초에 해외 중앙당국에 접수되어 있었던 탈취 사건	5	7	3	5
해외 중앙당국에 접수된 새로운 탈취 사건	1	1	1	1
해외 중앙당국에 그해 접수되어있는 총 탈취 사건	6	8	4	6
12 개월 이상 미해결된 탈취 사건	3	5	2	3
연말에 미해결된 사건	50%		50%	

자발적 반환: 협약은 중앙 당국이 “자발적인 아동 반환을 확보하거나 사건의 우호적 해결을 불러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한개의 탈취 사건이 자발적 방법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위치 파악: 능력있는 관료들이 협약 청구가 접수되고 난 후, 정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동을 찾기 까지 34 일이 걸렸습니다.

사법 관료: 대한민국의 사법 관료들은 정기적으로 협약 사건들의 어린이들을 반환하기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건들은 한국 사법 관료들과 1년 이상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협약 사건의 아동을 돌려주기를 명령하였으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다수의 집행 절차들이 지연을 야기하였습니다.

집행: 대한민국의 법원이 협약 아래 아동들의 반환을 명령하였으나, 집행을 위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이것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정체되어있는 사건을 포함하였습니다. 두 개의 사건 (100 퍼센트의 미해결 사건에 기여하는) 은 법 집행관이 반환 명령의 집행에 실패하였고, 12개월 이상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남겨진 부모는 반환 명령의 집행을 위한 법 절차에서 몇 달의 시간을 보내어야 했고 이것은 반환 지연을 야기하였습니다. 탈취 부모가 자발적으로 협약 아래의 반환 명령에 따라 주지 않았을 경우, 헤이그 협약의 판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이행 패턴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무부의 의견: 국무부는 한국 관료들과 우려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 높은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